

보도시점 2026. 8. 13.(목) 14:30 (2026. 8. 14.(금) 조간)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특별진단 실시

- 노사발전재단-대한병원협회, 「병원 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협약 체결
- 협회 추천 병원 신속 심사(fast-track)·특별 진단 의무화·맞춤형 지원 등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는 8월 13일(목) 14시 30분 대한병원협회 중회의실에서 「병원 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6.8.13.(목) 오전 9시30분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공동 협약의 후속 조치로, 의료 현장의 조직문화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터혁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①병원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②병원 업종 대상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공동 홍보 및 참여 확대, ③병원 맞춤형 교육 및 정책·우수사례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발전재단은 협약 체결에 앞서, 의료기관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의료기관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컨설팅을 의료 현장 특성에 맞게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의료기관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주요 내용]

① 병원 패스트트랙(Fast-track) 운영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며,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필수로 제공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하여 병원의 참여 부담을 낮췄다.

② 의료기관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

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진단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기존의 기초 조직진단에 더해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상호존중 문화와 심리적 안전,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위험, 신고·보호체계, 프리셉터 운영, 교대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의료기관의 조직문화를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③ 진단과 컨설팅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

특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 근로자 보호체계 구축, 노사파트너십 증진 등 병원별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관련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도 언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업 특화 교육 동영상 제작·게시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위 태움 등 의료기관 내 잘못된 관행과 문화,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고, 병원과 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노사발전재단-대한병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계획
2. 의료기관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계획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	책임자	본부장	남지민 (02-6021-1006)
		담당자	팀 장	김보령 (02-6021-1221)
			과 장	최윤제 (02-6021-1175)



- ☐ (목적) 의료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일터혁신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 ☐ (일시) 2026. 8. 13.(목), 14:30
- ☐ (장소) 대한병원협회 14층 중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 (참석)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대한병원협회 노홍인 상근부회장 등
- ☐ 업무협약 주요내용

① 병원 업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병원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진단도구 및 특별진단 활용 지원
- 협회 추천 병원에 대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확대(fast-track)
- 조직문화 개선, 근로자 보호체계 구축, 노사협력 증진 등 맞춤형 컨설팅 연계

②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홍보 및 참여 확대

- 병원업종 대상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공동 홍보
- 협회 회원병원의 컨설팅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③ 교육 및 정보교류 지원

- 협회 주관 교육·행사에 재단의 전문가 참여 및 정책 안내
- 재단이 운영하는 교육·포럼·세미나 등에 협회 회원병원 참여 연계
- 병원업종 일터혁신 우수사례 및 정책정보 공유

- ☐ 시행일: 2026. 8. 3.(월)부터

※ 병원 업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주요 내용은 2026.8.3.부터 시행

① 병원 특화 컨설팅 지원

① (신속지원) 병원업종 패스트트랙(fast-track) 가동

- 대한병원협회 추천* 시, 심사 없이 즉시 선정하고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 필수 지원

* 협회 추천 시 신청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며, 신청 후 협회 추천을 받는 경우도 지원 가능

- 또한 자부담 면제 혜택을 통해 사업 참여 독려

② (특별진단)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화 「특별진단」 실시

- 컨설팅 진단 체크리스트를 강화하여, 의료기관 맞춤형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진단을 위한 특별 진단 실시

- 컨설팅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특별진단 필수 시행

③ (특화컨설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화 컨설팅 지원

- 특별진단을 통해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으로 연계

* 특별진단을 통해 양호/개선필요/고위험 3단계로 구분 →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강력 권고 → 개선과제 거부 시 컨설팅 지원 불가·근로감독으로 연계

** 단, 패스트트랙의 경우 특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필수 지원

〈의료기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방안〉



② 맞춤형 교육 제공

① (온라인) 일터혁신 아카데미 선택과정 특별 편성

- 보건업의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일터혁신 아카데미 선택과정 특별 편성
- 2026.7.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①조직진단·조직문화 개선,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교육 제공

② (오프라인) 대한병원협회 회원사 교육 참여

- 대한병원협회에서 추진하는 회원사 교육에 참여하여, 병원장·병원 관리자·병원 내 근로자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례 전파

③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 제작

- (매뉴얼)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방안 체계화
 - 직장 내 괴롭힘, 의사소통, 리더십 등 의료기관의 주요 조직문화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모델 확산
- (참여확대) 병원, 컨설턴트,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기관 참여
 - 매뉴얼 제작 시 관계자·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콘텐츠로 구성
 - 완료 후 협회 회원병원에 배포하여 활용도 제고